

김건호 (웹 프론트엔드 / 신입) 지원서



김건호 1994년 (29세/만 28세) | 남

✉ svws5579@naver.com

☎ 010-2570-9586

☎ 010-2570-9586

🏠 (41204) 대구 동구 신암로16길

학력사항
대학교(4년) 졸업

경력사항
신입

희망연봉
회사내규에 따름

희망근무지/근무형태
대구전체
정규직, 인턴직

포트폴리오
<https://lvovll89.github.io/Kim-geon-ho/>

학력 최종학력 | 대학교 4년 졸업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13.03 ~ 2020.02	졸업	대구대학교 (대구)	컴퓨터소프트웨어	28 / 4.5
		논문&졸업작품 전자메모(app) , DU밥(밥집어플리케이션)		
2010.03 ~ 2013.01	졸업	청구고등학교	문과계열	-

경력 신입

자격증/어학/수상내역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2013.03	자격증/면허증	1종보통운전면허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	최종합격
2017.02	자격증/면허증	1종 대형 특수트레이일러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	최종합격

취업우대사항

병역대상	군필 2014.10 ~ 2016.07 육군 병장 만기제대
------	---

포트폴리오/기타문서

파일 구분	파일명
포트폴리오	https://lvovll89.github.io/Kim-geon-ho/

자기소개서

[생활신조]

제 생활신조는 잘 몰라도 최선을 다하자! 입니다.

군 제대 후 복학하고 전공이 아닌 다른 학과 강의를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전공학과 수업이 아니기에 처음 듣는 내용 자체에 멍하니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이론적인 내용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며 시간이 지나 중간고사 시험을 칠 때가 오고, 교수님께서 시험은 발표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발표나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발표 내용 자체가 이론적인 부분이 반영되어야 했고, 그래도 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시험이기에 열심히 이론공부도 하고, 발표 준비도 하여 자신 있게 시험을 보게 되었고,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교수님에게 내용도 좋고, 발표도 잘하였다고 개인적인 칭찬도 받게 되고 발표를 하며 수업을 함께 듣던 학생들에게 박수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좋은 성적도 받게 되어 처음 걱정과 달리 뿌듯함과 자신감도 많이 얻게 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익숙하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기업에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단점]

저는 공깃밥 같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요리이나 밥을 찾게되고, 어울리듯이 한 조직 안에서 잘 어울리고,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떠한 곳을 가든 어느 조직에서든 빠르게 적응하여 제 몫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보다는 조직의 화합, 모두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좋아하기에 저만을 위한 노력이 아닌 조직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늘 관심을 기울이며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 하나로 인해 모두가 행복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실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저의 단점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제과 공장에서 냉장된 생크림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공장 과장님께서 알려 주신 대로 분배했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로 인해 3~4박스 생크림 150여 개 물량을 못 쓰게 되어 제과 공장에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소식에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본인들의 실수라고 위로를 해주셨지만, 그 순간부터 알려주신 방법으로 생크림 분배를 할 때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더욱더 꼼꼼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공장에 손해를 입기 전보다 더욱더 일의 능률도 늘었고, 정해진 물량의 양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만들게 되어 더 큰 이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르바이트를 관두는 날, 사장님께서 씩씩한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만두게 되어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한 걱정이 저를 더 꼼꼼하게 만들어주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기 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기업에 입사하게 되면 당황하거나 걱정하는 모습 보단 더욱 꼼꼼하고, 유연한 대처를 하는 모습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무경험]

[1] 대학교 3학년 SW 설계 수업의 과제로 DU 밥이라는 대구대학교 근방 맛집 리스트를 추천, 알려주는 웹 사이트를 제작했었습니다.

저 포함 4명이 한 조가 되어 2명은 웹 사이트 제작, 1명은 UI, 1명은 DB 파트를 맡았고, 저와 웹 사이트 제작을 맡은 친구는 웹 제작이 처음 이었습니다. HTML, CSS, Javascript까지 처음 다뤄보게 되어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했고, 제작하며 구글, 네이버등 검색, 웹 개발 도서 등 필요한 건 다 이용하여 학교 교내식당, 학교 앞 식당들의 정보를 웹 사이트 내에 제작하고 했습니다.

표현하고자 한 식당들 자체가 경산, 하양 권의 정보가 많이 없는 곳들이기에 웹에서 정보를 구하기 어려워서 직접 가서 메뉴 사진, 가격정보 등을 구하였습니다.

차츰차츰 중간보고를 하며 어느 정도 웹 사이트의 구실을 갖추게 되고 과제 발표 당시에 결과물로 DU 밥이라는 타이틀을 띤 식당 추천 웹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 처음 다루는 언어들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꼭 만들어 보겠다는 열정을 앞세워 미숙하지만, 웹 제작을 해보니 희열감과 뿌듯함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입사를 하게 되면 회사 안에 맞는 언어, 코딩법, 개발 툴을 사용해야 할 것이기에 앞서 새로운 웹 제작을 경험으로 부족한 것은 공부하고, 필요한 툴, 언어는 매일매일 증진하는 모습을 보여 어제와 다른 오늘, 또 오늘과 다른 내일을 실력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2] 대학교 4학년 졸업과제를 할 때 저는 동기 한 명과 멀티메모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동기와 저는 대학 수업을 들으며 음성녹음, 메모, 사진 첨부 일기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 메모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코딩은 잘 안 되고 처음 써보는 툴, IDE, 코딩용어 등 다양한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작을 하며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도움이 될 만한 강의교재를 공부하고, 구글,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하나씩 제작해 나갔습니다. 물론 원하는 대로 인터페이스, 레이아웃, 시스템 등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에 희열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동기와 졸업과제 제출전 까지 우여곡절 끝에 메모, 녹화, 사진 첨부 등 여러 기능이 포함된 멀티메모를 만들어 제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프로그래밍에 대한 열정도 커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보다 훨씬 퀄리티도 좋고, 멋진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이런 제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입사 후 포부]

학창 시절 저의 별명은 하회탈이었습니다.

많이 웃어 눈웃음이 있고 항상 잘 웃어서 주변인들이 하회탈 같다고 많이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지할 때는 웃음보단 진지함으로, 함께 웃어야 할 때는 누구보다 웃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어느 곳이나 어울리곤 했습니다.

비록 아직은 신입이지만 신입이기에 가능한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임 할 것이며, 또한 제 별명처럼 잘 웃는 얼굴로 팀원들에게 밝은 에너지와 진지해야 할 때는 진지함으로, 이른 시일 내에 적응하는 모습과 뽑아주신다면 미소로 보답 할 수 있게 능력까지 갖추도록 증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프론트엔드를 넘어 백 엔드 개발까지 매일매일 노력하여 가까운 미래에는 자사에 더욱 큰 도움이 되도록 유능한 풀 스택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